

## 극한을 넘어 평화를 달린다 'DMZ 트레일러닝' 9월 20일 개막



평화를 염원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스포츠 대회가 경기-강원 DMZ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과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9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기-강원 DMZ 일원 평화누리길과 산악지대에서 열리며 오는 8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DMZ 일원 100km를 누비는 극한 스포츠 '2019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은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가득 품은 경기북부 DMZ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해온 대회입니다.

올해는 참가자들의 역량에 맞춰 100km, 김포 14km, 연천~철원 50km, 파주 18km-9km 코스로 나뉘어 운영되며 특히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DMZ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을 위해 2일차 50km 코스는 연천 고대산에서 출발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비경을 달려 고석정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접수는 오늘(25일)부터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http://www.dmztrailrun.com))를 통해 가능하며, 100km-50km-18km는 만 18세 이상, 14km는 만 13세 이상, 9km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는 7만 원, 14km-18km-9km는 3만 원으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1~3위 입상자에게는 상패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http://www.dmztrailrun.com))를 참고 하거나 DMZ 트레일 러닝 사무국(02-449-735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석현 기자 ([burok@kbs.co.kr](mailto:burok@kbs.co.kr))

## 'DMZ 트레일 러닝' 9월 20~22일 개최

경기도가 오는 9월 20~22일 김포, 파주, 연천 등 DMZ 인근 평화누리길에서 산악마라톤 'DMZ 트레일 러닝' 대회를 엽니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들길이나 산, 숲을 달리거나 빠르게 걷는 일종의 산악마라톤입니다.

올해로 3회째 맞는 대회는 100km, 김포 14km, 연천~철원 50km, 파주 18km-9km로 나눠 진행됩니다.

100km 코스는 사흘간 파주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와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첫째 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나눠 달립니다.

당일 코스는 20일 김포(14km), 21일 연천~철원(50km), 22일 파주(18km-9km)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100km 30만 원, 50km 7만 원, 나머지 코스 3만 원 등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1~3위 입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8월 30일까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http://www.dmztrailrun.com))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산악 마라톤 'DMZ 트레일 러닝' 9월 개최

100km, 김포 14km, 연천~철원 50km, 파주 18km-9km로 나눠 진행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20~22일 김포, 파주, 연천 등 비무장지대(DMZ) 인근 평화누리길에서 산악마라톤 'DMZ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 러닝은 포장되지 않은 들길이나 산, 숲을 달리거나 빠르게 걷는 일종의 산악마라톤입니다.

경기도는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알려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개 시군과 공동으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00km, 김포 14km, 연천~철원 50km, 파주 18km-9km로 나눠 진행합니다.

100km 코스는 사흘간 파주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와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첫째 날 김포 32km, 둘째 날 연천 50km, 마지막 날 파주 18km를 나눠 달립니다.

당일 코스는 20일 김포(14km), 21일 연천~철원(50km), 22일 파주(18km-9km)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8월 30일까지 DMZ 트레일 러닝 홈페이지(www.dmztrailrun.com)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 02-449-7352)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디엠지 트레일러닝  
**DMZ TRAIL RUNNING**

100K 스테이지 레이스  
스태이지 1 09. 20(금) : 김포 32km  
스태이지 2 09. 21(토) : 연천 철원 50km  
스태이지 3 09. 22(일) : 파주 30km

50K 09. 21(토) : 연천 고대산 산악지대, 철원 09. 22(일) : 파주 30km  
9K / 20K 09. 22(일) : 파주 30km

Tel : 02-449-7352 / Email : a.plan@daum.net  
[www.dmztrailrun.com](http://www.dmztrailrun.com)

주최 | 경기관광공사 | 경기체육진흥재단 | PNU | 경기농업진흥재단 | 후원 | 경기관광공사

2019

# DMZ둘레길 명칭 'DMZ 평화의 길' 확정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이하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권역을 연결하는 DMZ 평화·안보 체험길의 정식 명칭을 'DMZ 평화의길'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DMZ 평화의길'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27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고성 구간이 처음 개방된다. 정부는 그동안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8개의 후보명칭을 정해 걷기여행길 누리집 '두루누리' 페이스 북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국

## 8개 후보명칭 국민의 의견 수렴 간결하고 직관적 인식 최종낙점

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DMZ 평화의길'이라는 명칭은 그 결과를 토대로 길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DMZ 평화의길'이 선정된 이유는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는 평화 열원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길 이름이 간결해 부르기 쉽고 DMZ 길을 직관적으로 인식시키기에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DMZ 평화의길' 조성과 운영, 평화적 이용, DMZ와 그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행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DMZ 평화의길'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걸으면 DMZ권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세계평화의 여행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인기자